

마스크의 기적...美서 확진 미용사 접촉고객 139명 모두 음성

CDC "모든 미국인 마스크 쓰면 두달안에 코로나 통제 가능" 실무책임자 "마스크 정치 이슈화 불만...대통령 착용 기뻐"

모든 미국인이 마스크를 쓴다면 미국 내에서 고백이 풀린 코로나19를 두 달 내 통제할 수 있다는 보건당국 책임자 발언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이날 미국의학협회저널(JAMA)과의 웹 세미나에서 "모든 이에게 당장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면 4-8주 안에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드필드 국장은 또 마스크 착용이 정치적 이슈가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기존 같으면) 쉽게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보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이 '정치·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상황이다. 보건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마스크를 쓰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여기에 맞서 일각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하라고 요청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시민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노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중에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보이길 꺼려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메릴랜드주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일정을 소화했다. CDC의 마스크 착용 권고나 나오기 100일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또 미국에선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용사 2명이 마스크를 착용한 덕분에 접촉한 손님들에게는 전혀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은 사례가 화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추적결과를 공개하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역정책에 힘을 실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 A는 지난 5월 12일부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지만, 8

일 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손님을 응대하며 근무했다. 같은 미용실에서 미용사 A로부터 감염된 미용사 B도 지난 5월 15일 첫 증상이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근무하던 중 2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해당 영업장을 3일간 폐쇄하고,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향후 2주간 추적 조사했다. 두 미용사가 이 기간에 접촉한 고객은 총 139명이며, 평균연령은 52세로 21~93세 사이에 남녀가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응한 67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으며, 검사를 거부한 이들 중에서도 당국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고 신고한 사람은 없었다. 이들 대다수는 미용실을 방문할 당시 15~45분 사이의 체류 시간 동안 면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5%는 N95 마스크를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54만 5000여명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7만명대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여러 주에서 속속 봉쇄조치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LA 다저스타디움 앞에 늘어난 코로나19 검사 차량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소 앞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의 차량이 차례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도난당했다가 회수된 뱅크시 그림 프랑스에서 도난당했던 영국 예술가 뱅크시 작품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벨기에·영국 이어 프랑스도 유럽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벨기에와 영국이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프랑스도 14일(현지시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벨기에에는 지난 11일부터 상점, 쇼핑센터, 영화관, 박물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50유로(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 데 이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영국도 지난달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쇼핑할 때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0파운드(15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싶다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최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 해외 감염 위험 지역에서 돌아올 때 등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홍콩특별지위 박탈...수출규제·자산동결 등 전방위 철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며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지난 5월 29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지 46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홍콩 민주화를 약화시키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홍콩의 수출 관련 예외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국 인사들을 중심으로 홍콩 보안법 관련 여자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철폐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사실상 '일국일제'로 되돌렸다고 판단한 만큼 홍콩 여권 소지자를 중국 본토 인사들과 동일하게 대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행정명령에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하고, 경찰 및 안보기관 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끝내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홍콩간 수항자 이송에 관한 협정도 파기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법 기관 간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특정 개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은 물론 특히 홍콩 거주자를 위한 난민 수용 규모도 '재할당'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당국의 박해를 피해 도미할

경우 이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그 수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명령은 "대통령 결정으로 정한 연간 난민 상한선 내에서 인도적인 우려에 근거해 홍콩 거주자에게 허가를 재할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 국무부가 그간 진행해온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철폐와 지금은 만료된 미 내부부 지질조사국과 홍콩대 우주지구 정보과학연구소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행정명령은 홍콩을 중국 본토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조항을 취소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베트남 여성 63% "가정폭력에 시달린다"

베트남 여성의 63%정도가 가정 폭력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사회보호부가 지난해 통계청과 함께 15~64세 현지 여성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9%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가정폭력 가운데 한가지 또는 2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2%는 1년 안에 배우자 또는 동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의 47%는 정서적 폭력을 호소했다.

또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은 26.1%로 2010년 조사 때 나온 31.5%보다 낮아졌지만, 성적 폭력 피해 여성은 2010년 9.9%에서 지난해 13.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남아시아 폭우로 400만명 피해..."방글라데시 국토 3분의 1 잠겨"

문순(계절풍) 우기에 접어든 남아시아에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

15일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달 하순부터 이어진 폭우로 방글라데시, 인도 동북부, 네팔에서 약 400만명이 홍수 피해를 봤다. 230여개의 강이 밀집해 저지대가 많은 방글라데시의 침수 피해가 컸다.

아리푸자만 부이안 방글라데시 홍수

예보·경고센터장은 AFP통신에 "1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될 것 같다"며 "국토의 3분의 1가량이 물에 잠긴 상태"라고 말했다.

부이안 센터장은 예보에 따르면 비가 더 올 예정이라며 "제방이 더 터진다면 최악의 경우 국토의 40%까지 침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폭우로 인해 현지에서는 150만명이 가

옥 침수 등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곳곳의 도로와 농경지도 물에 잠겼다.

방글라데시 인근 인도 동북부 지역에도 폭우가 강타했다. 이 지역 아삼주에서만 21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아삼주 당국은 "2주 이상 많은 비가 쏟아져 주 내 33개 지구 가운데 26곳에 피해가 생겼다"며 "이번 비로 인해 숨진 이도 7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상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4.4%로 저금리 대출
-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지역은 전국 100% 범위 (신협 100% 범위)
- 저금리 대출 신청 시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저금리 대출 신청 시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